

‘돈키호테’ 김보성 의리 없는 사회에 ‘나? 으리’를 외치다

이 정도면 그의 진정성을 인정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데뷔 이래로 일편단심 ‘의리’만 외치는 김보성의 진심이 드디어 빛을 발했다. 나 혼자만 잘살겠다는 이기적인 사람들 속에서 더불어 살자며 ‘의리’를 지키는 김보성은 대중이 진정으로 원하는 스타다. 의리를 잃은 사회에 던지는 돈키호테 같은 그의 순수한 진심이 인터뷰 내내 전해졌다.

글 김겨울 스포츠조선 기자 사진 뉴스스

interview





“의리가 (식혜 광고를 통해) 코믹하게 부각되면서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게 된 부분은 고마워요. 단, 너무 희화화될까 우려스럽긴 하죠. 더욱 진정성 있는 의리가 많이 부각됐으면 합니다.”

인간이 마땅한 행동을 함으로써 천리(天理)를 실천한다는 뜻의 ‘의리’. 이 단어가 우습게 들린다는 것 자체가 어찌면 이상한 사회일지 모른다. 김보성은 그 점을 걱정했다. 그는 의리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철학을 들려줬다. “의리에는 3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의리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쌓아온 우정, 2단계는 우정이 발전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공공의식, 그리고 더 발전한 3단계는 측은지심이 따르는 이타심을 가진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신 작가의 ‘인간시장’ 읽고 세운 철학

문득 궁금해졌다. 의리에 대한 그의 확고한 철학. 언제부터 생긴 걸까? “어린 시절부터 의리 있는 삶을 원했어요. 태권도를 배워 혹시 친구나 친구 동생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달려가서 혼내주기도 했죠.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김홍신 작가의 ‘인간시장’을 읽고 나서였죠. 장충찬이라는 캐릭터에 매력을 느끼고, 내 인생의 모델로 삼게 됐죠.” 액션 배우가 된 계기도 있었다. “스무 살 때였어요. 공원에서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세 명의 양아치가 각목을 숨기고 그들에게 다가가더라고요. 약을 한 듯 보여서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도망가라고 하고, 양아치 세 명과 결투를 했어요. 1 대 3으로 싸웠는데도 경찰서에서는 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쌍방 폭행으로 처리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현실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래서 액션 배우가 돼 사람들에게 의리를 전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는 액션 배우가 됐고 제임스 던을 닮은 꽃미남 외모와 스티트 대역도 마다하지 않는 열정으로 배우로서 명성을 날렸다. 영화 ‘행복은 성직순이 아니잖아요’,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있잖아요. 비밀이에요?’ 등으로 청춘스타 반

열에 오르더니, ‘하얀전쟁’, ‘모래시계’, ‘투깝스2·3’, ‘파트너’, ‘보스상륙작전’ 등에 출연하면서 의리 아이콘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더 많은 이를 돕기 위해 가꾸는 건강한 삶

그는 진지하게 말을 이어갔다. “의리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작게라도 실천할 수 있어요. 먼저 타인을 위한 마음을 갖는 것부터가 의리의 시작이죠. 궁극적으로 남을 배려하다 보면 용서도 쉽고, 포용력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타인에게 감동을 주고,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회가 내가 바라는 사회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였을까? 그는 대출까지 해가며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성금을 마련해 회제를 모았다.

액션 배우로 여전히 활동 중인 그는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도 ‘의리’를 위해서라고 말한다. 건강해야 다른 이를 더욱 많이 도와줄 수 있다며 운동이나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무엇보다 ‘사람’이 건강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좋은 사람들 옆에서 좋은 인연을 오래오래 의리 있게 유지해가는 것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그는 기자에게 “기자로써 의리와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일해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남기며 또 한 번 의리를 외친다.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하나의 주제였던 ‘의리’ 인터뷰. 단언컨대, 그는 지고지순한 순정파 의리남이었다. 참, 인터뷰를 위해 전화했을 때 김보성 휴대전화의 컬러링은 007 시리즈 OST였다. 📞